

# 광주는 오늘도 폭염과의 전쟁...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광주시 클린로드 가동·차량 16대 동원 400km 지열 식히기  
북구 드론활용 농촌 예찰·서구 빅데이터 통해 그늘막 추가 설치  
도심곳곳 폭염저감시설 2063곳 운영...건강수칙 지키기 캠페인

가을이 시작된다. 절기상 입추(立秋)인 7일에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시와 자치구의 '폭염과의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올 들어 예년보다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 2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살수차량 동원,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폭염취약계층 특별관리 등 강도 높은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특히 26개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 등 응급 구급체계 구축하는 한편 폭염 취약자를 위해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2063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열선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극락교-송정역 구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한 4km의 도로살수장치(클린로드)도 집중 가동하고 있다.

또 살수차 13·16대를 동원해 매일 400km에 이르는 다중밀집지역 주변 도로를 살수하는 방식으로, 아스팔트 도로 열기를 낮추는데도 인간힘을 쏟고 있다. 횡단보도 주변에는 파라솔 형태 그늘막 576곳을 설치하고, 도심 곳곳에 물안개 분사장치 등을 배치해 보행 시민이 인도 위에서 잠시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특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폭염보호대책' 대폭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 등 1000여명을 동원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방식으로 어르신 1만350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자(친지)와 비상연락체제도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힘쓰고 있다. 온열질환 사고 우려가 큰 외부 체육활동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행사(대회) 시 폭염 대응 표준 매뉴얼인 '광주시 폭염대응 체육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별 현지 점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자치구별로 개별 운영하는 맞춤형 폭염 대책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 서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내 열 취약지역을 분석한 뒤 그늘막 우선 설치 등 폭염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북구는 드론을 활용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 등을 집중 예찰하고 있다.

북구는 특히 드론에 스피커를 설치해 오후 2~5시 영농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야외 작업자 발견 시엔 귀가나 휴식을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광산구는 광산구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열음생수 나눔 냉동고'를 배치하고, 고령 농업인과 야외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 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광산시민 폭염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교통공사는 폭염 속 도시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야외 분수대를 가동하고, 역사 내 무더위쉼터·대형선풍기 설치, 열음생수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신민석 광주시 자연재난과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3대 건강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면서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염이 이어진 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대로변에 북구청 기후환경과의 살수차들이 지열을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당 본산’ 전남정치 위상 회복 적극 나설 것”

주철현 민주 신임 전남도당 위원장  
경쟁력 있는 정치인 적극 영입  
양곡법·전남특별자치법 관철



주 위원장은 "전남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불행을 끊어내고 전남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 대선 승리의 초석을 마련해야 윤석열 정권을 최종 심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서 뜻있고 역량 있는 분을 누구에게나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시스템 공편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깃발만 쏘면 되는 지역이 아니라 될 만한 인물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게 주 위원장 구상이다.

전남의 핵심 현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표적 지역 현안으로 양곡관리법, 전남특별자치도법, 여수국가산단 활성화를 꼽고 있다.

주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한우 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기력안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최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촌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인구 감소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인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발굴, 추진하는데 적합한 전남특별자치도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주 위원장 입장이다.

그는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과 긴밀히 논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 활성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확고했다. 그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탄소국경세' 도입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여수산단을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화 전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남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으고 비슷한 처지의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투세 폐지와 관련, 국민의힘과 공조를 하는 것은 물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

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